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副業品共進會所感

一

二十萬圓의 豫算으로 朝鮮總督府(中央과 地方을合하야)의 力을 傾注한 朝鮮副業品共進會가 景福宮에 열린지 이미 一旬이 지나고 觀覽者의 數爻가 이미 二十萬을 突破하엿다 南大門驛에는 地方에서 共進會를 보러오는 者와 보고 돌아가는 者로 大混亂을 일우엇다 實로 近來의 朝鮮의 大事件이다 이만큼 큰 經濟的 精力的 時間的 犧牲을 한다하면 거긔서 그만한 큰 効益이 生할것을 豫定해야할것이다

二

副業은 眞히 緊要한것이다 農閑期라는 特種의 閑暇를 가진 農民에게는 더욱이 그러하고 그中에도 世界에 어느 人種보다도 가장 貧窮하고 가장 産業이 衰弱한 朝鮮의 農民에게는 더욱더 그러할것이다 아모리 하여서라도 모든 朝鮮의 農民에게 副業을 주고십다 그럼으로 朝鮮의 副業을 奬勵하는 무슨 일에든지 우리는 贊助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 이번 景福宮에 열린 副業品共進會가 果然 얼마나 副業奬勵의 效果를 가질수잇슬가 우리는 副業共進會의 計劃을 들을 때부터 그 犧牲과 效果의 比에 對하야 懷疑的이엇섯스나 開會後에 日이 進할사록 더욱 懷疑는 깁허지어서 마츰내 絶望的이 되고 漸々 一種의 悲哀에 感하지아니치못하게되엿다

三

共進會場內에 들어가서 첫재 眼目을 니르킨것은 場內에 陳列한 副業品의 價値와 陳列 所謂 副業品이라하야 陳列한 것中에 果是 現下 朝鮮農家에서 實行할만한 副業이 幾種이나 될가 그 大部分은 特殊한 技術의 熟練을 要하는것이 아니면 不少한 資本을 要하는 것이오 그러치아니하면 非近加的인것이다 더욱이 多數의 副業이 되지못할것이 陳列된것을 봄에 우리는 이것이 副業奬勵를 目的으로한 共進會場인지 一部商人의 商品廣告를 目的으로한 廣告會場인지 疑問을 禁할수업다 가령 菓子의 製造, 魚物, 廣島 岡山縣等의 物産陳列等은 조곰도 朝鮮의 副業과 秋毫의 關係도 업는것이다

커를 農民이 一十圓乃至數十圓을 쓰고와서 이것을 보고 무슨 效果를 어덧슬가 燦爛한 電光과 神奇한 電氣의 應用 電氣燈이며 飛行機 其他 奢侈品을 봄에 니르는바 池魚의 慾을 보는 快感이나 어더슬가 더욱 陳列의 方法이 그 宜를 得하지못하고 또 어렵고 簡單한 日文의 說明과 間或 拙劣한 日文보다도 알기어려운 朝鮮譯文은 아마 그들의 大部分에게 아모 知識도 供給하지못하엿슬것이다 진실로 曲馬와 光武臺구경이 그들의 最良의 所得이엇슬것이다

四

그들은 이 共進會를 보기爲하야 或은 私債를 내고 或은 金融組合의 빗을 어더(그것이 多數라한다) 이 農家劇忙의 時機에 중은 三等夜行車에 비비대며 京城으로 모혀든것이다 그들이 異常한 旅人을 따라 무엇인지 알수업는 洋服장에게 쓸리어 萬人嘲笑裡에 左往右往하는것은 진실로 一種의 悲劇이다 萬幸된것은 그들은 副業에 從事할만한 眞正한 小作人이 아니오 거의 全部가 地主인것이다

五

副業共進會自身은 反對할것이 아니다 다만 그 方法이 넘어 形式的이오 虛張聲勢的이어서 朝鮮의 實情에 맛지아니하는 [illegible] 一般細民을 爲한것이 아니라 [illegible] 實益이 잇슬것이오 또 그들의 破費도 아니될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번 二十萬圓 豫算으로 巡廻共進會를 하엿더면 얼마나 有益하엿슬가 [illegible] 우리는 이 失策이 다시 反復되지 말기를 바란다

社會內面的生活考察(十九)

在東京 金商圭(寄)

四、人生은果然利己的動物인가(續)

우리가 이러한 生命의 本質을 基礎로 한 同時에 거기는 不純한 利己心의 容隙을 許諾치안는 物我同化의 融合 同化는 假令 그것이 持久的 持續的이 아니될지라도 우리가 커 悲惨의 자리우에 업드려서 慟々痛哭을 하는 아릿 [illegible]

五、人生은何故로利己的인가

問汝何事棲碧山? 人生은 무슨 까닭으로 이가치 利己的 분자에 接息하는가 [illegible] 그러나 對答을 하니하고 엇지할가 그것은 그 一言으로써 對答하면 [illegible] 利己的 純粹하고 純眞한 感情移入의 成立을 妨害하는 엇더한 물건이 [illegible] 우리의 現實生活에 附着하여 잇는 外部的 條件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事情中에서 가장 重要한 두가 [illegible]

朝鮮史槪講(六)

李丙燾

第一篇 上古史(續)

第六章 高句麗와 隋唐과의 交涉(續)

(一)隋의 入寇(續)

陷落치못하야 翌年에 再次大軍을 親率하고 遼水를 건너 極力으로 遼東城을 攻圍하얏스나 城과 兵은 如前히 堅强하고 또 마참 本國의 叛亂의 報(楊玄感의 亂)를 接하야 煬帝는 非常히 周章을 解하야 軍을 撤去하얏다 [illegible] 數千兵으로 오직 二日을 지나서 (數千兵을 出하야) 이를 追擊하야 遼水를 渡하는 敵의 後軍을 擊破하얏다 煬帝는 도라가 叛賊을 平定하고 翌大業十年(嬰陽王 二十五年)에 更히 北三回의 遠征을 이르키엇스나 國內는 太平치못하고 士氣沮喪하야 또한 功을 奏치못하고 말앗다 일로 因하야 隋의 叛亂은 더욱 激烈하야 감으로 國內의 王室의 威信을 失하고 煬帝는 마참내 뜻을 遂치 못하고 未久에 身을 亡하고 國을 唐에게 빼앗기엇다

(二)高句麗와 唐의 關係

隋의 滅亡할 지음에 高句麗에도 英主嬰陽王이 殂하고 그 異母弟되는 榮留王(第二十七代)이 祚를 踐하얏다 이 新立의 主와 新興의 唐 사이의 外交가 장차 어떠할가 當時에도 매우 興味잇는 問題이엇슬것이다 이때 唐 高祖 李淵은 될수록 高句麗와 好誼를 結하려 하야 使를 보내어 隋代의 軍士로 高句麗에게 捕虜된 者의 放還을 請求하고 또 麗王의 快應이 잇자 唐主는 그 厚意를 感謝하야 道士를 보내어 道敎를 講케하얏다 麗王은 國人으로부터 이를 盛聽한 後 使를 唐에 보내어 佛老의 敎法을 求하는 等 比較的 和親의 關係를 맺어 그러나 唐 高祖의 子 李世民 即 太宗이 立하야는 使를 高句麗에 派하야 隋代 遠征에 戰沒한 兵士의 遺骸를 葬케하고 또 高句麗의 戰勝을 誇하기 爲하야 設한 紀念物을 破壞케하야 高句麗 人의 感情을 刺戟하니 害할 줄을 아니라 世民의 勤々한 野心은 더욱 高句麗의 注意를 不絶히 이르키엇다 高句麗는 이를 警備하기 爲하야 十六年을 費하야 西境上에 千餘里의 長城을 築하얏다 三國史記 榮留王紀 十四年春二月에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이라하얏는대 或은 今日 遺存한 奉天省 開原縣의 長柵이 此라한다 그러나 或은 이를 否認하는 이도 잇다

그러나 高句麗는 長城의 役을 監督하던 東部大人 泉蓋蘇人(或號 蓋金)이 王과 밋 諸臣들이 自己를 미워하야 誅斬하려함을 알고 곳 致하야 등을 殺害하야 王의 姪臧(即 寶藏王)을 세워 王을 삼고 스스로는 莫離支(兵馬大權을 가진 最高官)가 되야 國事를 오로지하얏다 蓋蘇文은 儀表가 雄偉하고 意氣가 豪邁하고 身에 五刀를 佩하야 左右가 敢히 仰視치 못할만큼 威風이 잇섯다 한다 人格의 힘은 偉大한 것임으로 이 蘇文의 雄姿傑出이 唐과 新羅와 百濟等 諸國과의 外交關係에 如何한 變動을 生케할는지 大注視의 目的物이 되얏슬것이다

(三)三國의 形勢

百濟가 聖王 晩年에 新羅와 隙을 生하야 또 仇讐의 關係에 이른 것은 이미 述한 바어니와 百濟는 그 後 威德王, 惠王, 法王의 三代를 지나 第三十代 武王에 이르러는 性이 豪邁함을 好하야 內로 土木을 起하고 外로 新羅를 자조 攻征하야 前日의 恥를 雪하얏고 다음 義慈王이 即位하야는 더욱 新羅를 頻侵하야 四十餘城을 攻取하얏다 이때 新羅는 百濟에 對하야 報復的 行動을 取하랴 高句麗에게도 金春秋를 보내여 援을 乞하얏다 그러나 高句麗는 蓋蘇文이 이를 不許할뿐아니라 前日의 敵이던 百濟와 同盟을 締結하고 新羅의 黨項城(今 安山)을 攻破하야 그 唐에 通하는 길을 막엇섯다 前者에 高句麗가 隋의 入寇를 바더 [illegible] 暇가 업슬때에 新羅는 [illegible] 侵掠한 일이 잇섯슴으로 高句麗에 對하야 더욱 원한이 잇섯다 [illegible] 新羅(善德女王時)는 麗濟和親의 痛을 感하야 [illegible] 自國의 事情을 唐에 말하고 救援을 請하얏다 唐主 李世民은 이에 玄奘을 高句麗에 보내여 新羅를 侵치 말라고 勸告하얏스나 蘇文은 恬然히 答하기를 往昔 隋의 入寇가 잇슬 때에 新羅는 이틈을 타서 我地 五百里를 侵하얏슨즉 이것을 還返치아니하면 兵을 休치 못하겟다고 하얏다 그 後 또 唐使가 와서 左右와 가든 말을 反覆하얏스나 蘇文은 마참내 怒하야 唐使를 窟室에 가두엇섯다

開城行(四)

柳光烈

◇共進會는 소경의 丹靑◇

얼마 잇다가 눈을 떠보니 곳에는 農夫인듯한 사람이 하나는 때랑이 쓰고 하나는 갓쓴 사람이와서 안젓다 나는 이런 때 아는 쳬 려안커 그를 파이런 言語를 交換하엿다

『나』어데 사시는데 어데까지 갓다 오십닛가?

『갓쓴이』우리는 커―長湍 사는 사람인데 서울 구경 갓다 오는 길입니다

『나』서울 가셧스면 요세 열리는 共進會 구경하셧겟습니다 그려

『때랑이쓴이』구경하엿지요

『나』그래 엇덥듸까? 어데가 第一 보기 조흡듸까

『때랑이쓴이』버든 담배대를 쓰세고 그 커―그게 그것입듸다 年前에 松都서도 品評會가 열리엇는데 그것이 그것입듸다 보것는데 찬란하게는 하야 노앗습듸다마는 원―다 엇더케 그럿케 만드러노앗는지 소경 丹靑구경이지 알수가잇서야지요 그 사람도 求景입듸다 아이구 참 커 사람 求景입듸다 아이구 [illegible]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52)

廉想涉

一八

(중편)

『그래도 만나보구십기는 하겟지? 또한번 보도록 해주라나?』

석태는 놀리듯이 또 한마듸 하얏다

『오작이나 조켓나』

『하지만 돈은 버어노라면 내노아도 료리스집에는 인제는 정말 못가겟네』

『그래 생전 료리스집에는 얼신도 아니하든군』

『참료리스집에들은 웬만이서 요 안선생두 그런데를 단이십니까?』

이번에는 마리아가 놀란듯도 하고 책망하는 듯도 하게 한마듸 하얏다

『안에 요친구한테 쓸리면 하는 수업시 가보기두 하지만……』

하며 석태는 명수를 바라다보앗다 명수는 마리아 알에서 되지 안케주와도 쩔아보이고 화류계에 눈도 뜨지 안는 듯 이 연애변명을 하는 석태의 [illegible] 가보기 실혀서 무어라고 쎄진소리를 한마듸 하랴다가 도로 혀 자긔의 갑절치나 쑤덕질가 보아서 잠잣고 마랏다

문수는 무슨 훙이 쐐처엇는지『사이다』를 사들인다 수밀도를 사들인다하야 손소처리다가 내어드리고 혼자 조화한다 그러나 안방에 드려안즌 어머니는 놈은과부의 버릇으로 입을 빗죽 어리며 내다보지도 안엇다 명수도 속으로는 우섯다 이 세사람의 과분이 나 십리는 눈치도못채이고서 혼자 엉뚱해하는 꼴이 돌이어 가엽서 보이엇다

마리아가 듯하는 입버릇으로 느젓다고 니러나와 석태도 따라나섯다 명수는 속으로나두 또 차나가볼가? 하다가 고만두어버렷다

『요다음 오실 때에는 순자씨하고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나오는것을보고 또 무슨소리가 나올가?』

『그래서 어쩻서?』 하며 무릅다마리아는 자기가하든 말을 니커버렷다는듯이 『무얼 어쩌요!』 하며 남자를 치어다보앗다

『어듸로 갈테요? 커리아니가시랴오?』

『황토人마루쎄 써지 와서 석태는 녀자에게 이럿케 무럿다

『글세요 생각은 해보지만……』

[illegible]

學生界

朝鮮學生會編輯 仲秋號(郵稅三錢 定價三拾錢)

苦悶과 藝術……方元龍

雜誌編輯의 實際……編輯人

原始舞蹈『코로쏘리』……趙南吉

未來派畫家의 宣言……金舜河

新女性創作詩三篇

孤獨한 내몸……金永福

百合꽃……秦淑卿

님의 발자최……金燮多

現代社會批判(學生)(聯評)紅唐鄕·鐵鞭子

朝鮮文壇의 嚴正批判

教會에 向하야 放一矢

男性眼에 비친 今日女性

創作

G집行廊(小說)……東月望人

女人의 審判(戲曲)……朴八陽

脫出(小說)……써에르、루이

印度人의 草幕(小說)……高乙僧

黃金의 腦髓(童話)……또―데―

女性旅行家『레듸쭈릿세』……崔一

牧歌(詩)……鄭芝溶

童謠……丁香日

米國女學生氣質……李東雲

骸骨의 饗宴(詩)……방포영

總發賣所 京城堅志洞三二番 振替京城七六六〇 漢城圖書株式會社

責任保證付 엑스트라 一萬年筆

他品에 優越한 本品의 特長

白熱的大需用 輸入防止 國益增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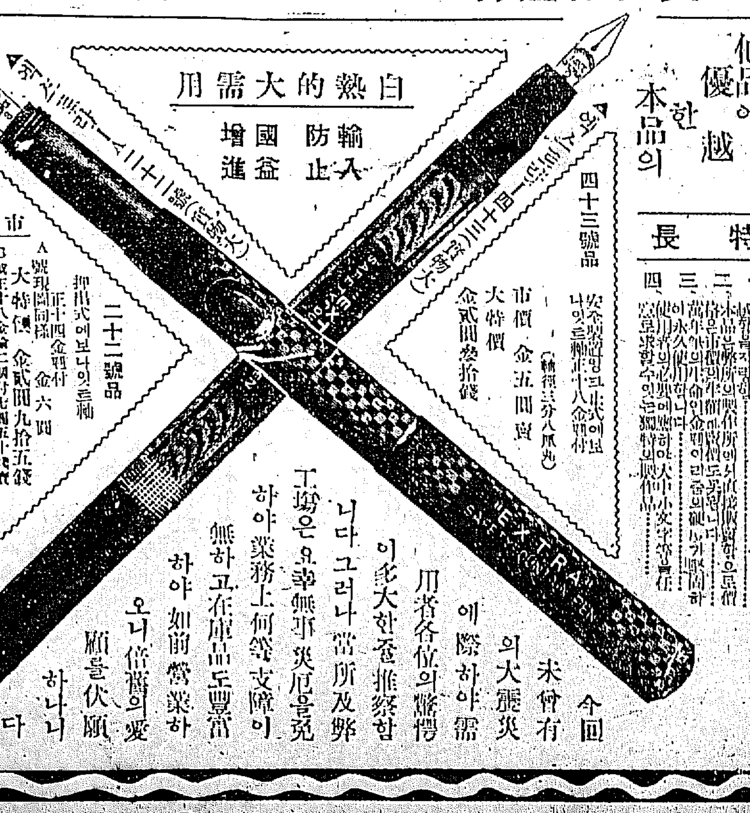
四十三號品 市價 金五圓 大特價 金貳圓參拾錢

二十二號品 市價 金六圓 大特價 金貳圓九拾五錢 / 金參圓八拾五錢

今回 未曾有의 大廉賣 用者各位의 需要에 際하야 이 多大한 犠牲을 斷行함니다 그러나 當所의 工場은 幸히 無事하야 業務上 何等 支障이 無하고 在庫品도 豐富하오니 倍舊의 愛顧를 伏願하나이다

菊版洋裝三十六頁冊子에는 五拾有餘種類 實物大寫眞目錄 請求하는대로 無代進呈함니다

東京市小石川區原町十二 エキストラー萬年筆本舖 明盛進堂製作所



化泉帽子店

京城鍾路三丁目六番地

中折帽 鳥打帽 學生帽 防寒帽 青年帽

京城自動車講習所

活版印刷면?

振陽源

腎氣虛弱한 諸位에 渴望하든 神秘的奇藥이 出來?

製造發賣元 京城府 朝鮮賣藥商會

臨城案回答內容
中國政府對外交團

十五日午後一時에中國政府에서는臨城事件의回答書를外交團에發附한바其內容은賠償을承認하는同時에其一部賠償에就하야協議를要求하고責任者의處罰은此를認定한後鐵道警備는列國과中國의共同으로한다는原則을記錄한것이더라(北京十五日發)

鐵道警備隊增員
各幹線에近々實施

交通部는土匪防備를完全히하기爲하야左記와如히幹線鐵道의警備增加를計劃하야近々實行할터이라더라(北京電)
一、京漢線保安隊三隊(一隊三百六十名)를四隊로하고警備隊三千四百名을四千二百名으로增加
一、京奉線保安隊一隊를新設하고警備隊一千八百名을二千名으로增加
一、滿洲線保安隊一隊를二隊로하고警備隊二千二百二十名을三千名으로增加
一、京綏線保安隊一隊의三分一을一隊三分一로增加하고警備隊一千六百六十名을二千八百名으로增加
一、隴海線新古에保安隊二隊를設하고警備隊九百名을二千名으로增加

山東督軍罷免

山東督軍田中玉氏는罷免과同時에鄭士琦當務將軍이되얏더라(北京十六日發)

奉軍演習開始

張作霖氏가計劃한秋季演習은人心의動搖를避키爲하야此를大規模의對抗演習으로하지아니하고各部隊는駐屯地에서演習하기로決定하고第一師는十六日부터十九日까지北鎭에서第二十七師는二十日부터二十三日까지錦州에서其他各旅는二十四日부터十一月二十五日間에各駐屯地에서東三省各部隊를集合하야大規模의演習을行할터인데總指揮官은吳俊陞이라더라(奉天電)

普選斷行具體案
五大臣이會議決定

內相,遞相,農相,文相,法相及樺山書記官長은十六日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會合한後憲政會의選擧制度調查會案을基礎로하야意見을交換한結果普選의斷行及普選의具體案을決定하얏는대其大要는左와如하더라

選擧權
一、納稅資格撤廢
一、日本臣民으로서年齡二十五歲된男子(學生,生徒도選擧權이有함)
一、同一選擧區內에繼續하야六個月以上住居한者

被選擧權
一、日本臣民으로서年齡二十五歲以上된男子(神官,僧侶,小學敎員도被選擧權이有함)
一、上院多額納稅者議員의選擧權과被選擧權이有한者는下院議員의選擧權과被選擧權이無함
一、投票日,選擧投票日은休日로함
一、選擧의革正에關한規定
一、選擧費用은一定額으로制限함
一、運動員은全廢
一、選擧事務所數의制限
一、同一立候補宣言書의配布를無料로함
一、公立學校를選擧에關한演說場으로使用케함
一、投票場附近에는選擧人休憩所의設置를不許함

罰則
一、以上各項과其他規定에違反한者는嚴罰에處함
一、選擧의公正을疑惑케함과如한事項에該當한行爲가有한者에對하야는當選을無効로함

施行期日
一、次回의總選擧

以上各項은最近閣議에報告할事等을協議하얏스나確實히立案하야議會에提出하기까지에는法制局에서審議成案한後更히樞密院의諮詢을經하여야될터이며如斯하야法律案으로提出될境遇에는多少의變更을見케될터이나其骨子는有力한五大臣會議를通過한것임으로多大한修正을見함과如한事는無하리라더라(東京電)

選擧法改正審議期

五大臣으로부터成立된選擧法改正調查委員會는十八日午後一時부터開會하고法制審議會가開會된後首相官邸에서閣會할터이라더라(東京電)

明年부터實施
內閣意嚮決定

普選案에對하야十六日內閣特別委員會에서는大體의意嚮을左와如히決定하얏더라(東京電)
卽第四十六議會에提案되얏든普選革新調查案의全部를認容하고更히罰則을嚴重히하야選擧費用에制限을設하며保證金二千圓의供給이無하면立候補치못하도록하얏스며又區制에就하야는現在의小選擧區制를採用하는等其證案을決定後此를十八日法制審議會에附하고施行에就하야는現行法이施行되얏든時와同一한附則을設하야明年選擧부터實施할意嚮이라더라

閣議決定事項

十六日閣議에서左의件을決定하야直時裁可를得한後卽日公布하얏더라(東京電)
一、郵便貯金爲替等權利의申告에關한件

政綱政策
山本首相의腹案

山本首相은政綱政策을決定코자目下閣僚의意見을徵하는中인데其決定까지에는尙히多少의時日을要할模樣이나然而山本首相은何等의考案이有한바數日前大石正已氏가訪問하고帝都復興의事는勿論[illegible]政綱政策에附치못할것이라고[illegible]山本首相은目下考慮中으로旣히一定한考案이有하도다그러나아즉何人에게던지此를吐露한바如何閣僚와一次相謀키難하야急速히決定코자하노라答하얏다하는바山本首相이如何한腹案이有한지는今에閣僚에도知하는者가無하나山本首相이內閣組閣을組織코자하다가失敗하얏고帝都復興에就하야再次擧國一致의實을求하야成功하얏나[illegible]復興院組織에擧國一致의形式을備할을得한故로政綱政策에就하야도恐컨대擧國一致로政綱政策에多大한困難을伴할理由는政黨閣僚俱樂部의主張하는바이나此政友會에서는反對하는바이니此間의調和를如何히할는지又普選卽行은元老樞密院方面의關係도測量치아니하면不可할으로急速히는決定치못할리인바此外閣內에서도普選에多少의文句를挿入하자는者도有한지라如斯히周圍의狀況을愼重히考慮한後가아니면如何히決定키難한形勢이나架空에서本首相으로는一切를擧國一致的으로政綱政策에實現에努力하는故로政綱政策에關하야도第一로此點을考慮할지나然而徹底한政綱政策은明키難할지니首相의果然如何한腹案을提出할는지此가昨今閣僚間에在한興味의焦點이되얏더라(東京電)

臨時議會와
激論豫想
甘粕案其他로

臨時議會에서는政府의震災救護에關한諸種施設이甚히其當을失한事에就하야相當히激論될뿐더러又甘粕及社會主義者一派에關한事件도一個의政治問題로重大한問題가되리라고豫測하며特히兩院을通하야는其後內務陸軍兩省間에各種으로意見의間隔이生하야警視廳과內務當局에對하야[illegible]한바山本內閣側의憤慨는旣爲同省內에서抛棄치못할事實로一般히此를認定하는바임으로萬一此를緊急히穿鑿할時에는今後如何한新事實이展開될는지도未知일지라故로此等의眞相이되는議會에서多數議員의質問이되야現出될터이며其結果責任者의地位에在한內相彈劾의示威運動이惹起될는지도未知인模樣인바如何間問題는臨時議會의別種問題로一層注目될것은事實이더라(東京電)

義務敎育
年限延長問題

岡野文相의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에關한意圖는大震災로因하야國家財政이窮迫한此際일뿐아니라特히文部省으로는東京을爲始하야直轄學校의復舊와罹災地國民敎育의復興等緊急하고更히莫大한經費를要할諸問題가橫在함으로輿論世評이有한延長諮問案을此際에撤回하고他日機會를待하야完全한것으로諮問하는것이可하지아니하겟는가하는것이나義務敎育의年限延長問題는敎育界年來의宿論일뿐아니라敎育評議員에對한體面도有함으로此等諸點을文相도考慮하는模樣이라然이나結局問案은此際에撤回할外에他道가無하리라고觀測되리라(東京電)

延長中止決定!!文部省

에서는十六日에義務敎育延長에就하야協議한結果適當한時期까지延期하거나又는中止하기로大綱決定하얏더라(東京電)

復興法案制定
來議會에提出乎

復興院에서는復興에關한都市計劃土地收用建築物取締及其他復興에關한事項을規定한復興法案을制定하기로決定되야計劃局에서는制度課長이目下調査立案中이라(東京電)인데本法制定에伴하야都市計劃法,市街地建築物法,土地收用法의一部改正案을復興法案과共히臨時議會에提出할터이라더라(東京電)

橫濱復興計畫案

橫濱市의都市計劃部에서는內務省技師牧彦七氏를顧問으로하야橫濱市의復興計畫案을立案中이든바近日에至하야成案을得케되얏슴으로十七日午後부터橫濱市復興總會를開하고此를附議決定한後復興院에建議할터인데右計畫案은幹線道路의幅員三十三間伊勢崎町通二十八間其他公園居留地,劇場地,遊廓地等을決定한것으로復舊費는約二千五百萬圓이라더라(橫濱電)

不平派의大結束
政友會分裂前兆乎

現狀打破를主唱하는政友會의不平派는十五日午後五時부터會合을開催한바木下謙次郞,川原茂輔,松田源治,鳩山一郞,高山長幸其他가出席하야協議한結果局面으로하야금現在대로放任하야둘時에는收拾키難한狀態가될터임으로各々結束할必要가有하다는意見의一致를見하얏스나더욱이具體的方法은地方黨員과도協議한後에善後策을講究하기로하고七時에散會하얏더라(東京電)

火災保險問題
早速解決要望

火災保險問題는아직解決치못하얏스나十五日閣議에서山本首相으로부터關係閣員에게對하야本問題의解決은刻下의急務임에不拘하고政府의態度를아직決定치못한것은甚히遺憾이니此際에適當한案을立하야速히解決하기를希望한다는意를述하얏슴으로農相과藏相은其解決을急하게되얏다더라(東京電)

買米目的은如何
農家金融緩和策

政府에서는今秋에米五千萬石을買入하는것은表面上에는米의需給을圓滑케하는同時에地方農家의金融緩和를圖하는것이目的이라는바農商務省에서는十八日까지에此等地方農家의資金窮乏狀態와其他調査材料를提出키로하고産業組合,倉庫,其他精米業者에게照會하야報告를求하는中인데右調査材料가到着된後에야買上價格을決定할터이라더라(東京電)

本建築用材는
更히米國에注文

外務省을經하야米國政府에對하야注文한木材百萬石,鐵材二百噸의注文은十五日駐米大使埴原氏가商務卿「후버」氏와面會하고交涉하얏슴으로米國政府에서는右注文에對하야最低價格으로써供給할터인데右는最近一年間假建築材로使用하고本建築用材에對하야는更히復興院의計劃이成立된後에多數의注文을米國政府와相議할터이라고埴原大使로부터外務省에傳達하얏다더라(東京電)

釣上作業進捗

沈沒潛水艦의釣上作業은十六日來로起重機船으로釣上하야[illegible]直時艦船으로航하야[illegible]此의[illegible]長曹脇田良惡의屍體인것이判明하얏더라(神戶電)

切手少數救急
九種切手新製造

遞信省에서는切手의少數를救濟키爲하야五厘,一錢,一錢五厘,二錢,三錢,四錢,五錢,八錢,十錢,二十錢九種의新切手를至急히製造하는中인데來月二十五日부터一般에賣出할터이라는바[illegible]切手取扱規則에는變更이無하다더라

抑留貨物
震災에依한
處置方法

鐵道省에서는關東地方震災로因하야輸送中止에抑留한貨物의處置方法에就하야[illegible]

告辭式辭祝辭

副業品共進會의褒賞授與式에[illegible]

告辭

[illegible]

不渡手形激增

京城手形交換所의本月上半期不渡手形은六十三枚,二萬四千五百二圓四十三錢인데前月同期에比하면枚數三十九枚,金額一萬三千七百九十一圓八十九錢을激增하얏는데原因은震災에關係가有하다는바同一人으로多數의不渡手形을出한人도有하다더라

釜蔚鐵道期成
陳情代表入京

[illegible]

第一回鑑種品評會

[illegible]

東京辯護士長後任

[illegible]

立花大將授爵

從二位勳一等功三級陸軍大將立花小一郎[illegible]

有害總監動靜

[illegible]

辭令

[illegible]

副共入賞
三千三百餘人

副業品共進會에서는褒賞授與式을行하얏는데出品點數一萬一千八百二十一點에對하야入賞點數는三千三百五十七點으로出品總數와入賞點數의百分比例는[illegible]

一等賞 品名 住所 出品人氏名

(prize-winner lists continue in many columns: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消息

[illegible]

地方團體入京紹介

中媒가

六味丸
補血養精 滋腎潤肺
朝鮮賣藥株式會社

一割引
理髮器具販賣大擴張地方注文迅速酬應
元村筆吉本店 地方販賣部

名啣印刷

六千會員諸君에急告
高等普通學會

德裕洋服店

ClibPDF - www.fastio.com

으로다소간변동이잇슬것은면치못할일이며특별히숙소의미뎡의극항은오다는뎐보는잇스나확실히밋을수가업는단데이다더라

毛骨이悚然한 大連慈惠病院의罪惡

醫員과警官의共謀로入院患者毒殺

며해동안계속하야수십명을독살한사실폭로

대련자혜병원(大連慈惠病院)에서는과거수년동안에강간(强姦)약탈(掠奪)독살(毒殺)등무서운죄를여러번범한사실이최근에발각되야일대문뎨를이르키게되얏는데그범죄사실의진상을듯건대그병원의의원(醫員)과감독자인경찰관(警察官)들이공모하야가지고입원한는부인환자(婦人患者)에게는거의전부를마취제(痲醉劑)로써강간을하고만일이러한광경을목격한자가잇스면즉시독살하여버리는것인데가튼악마의독수에너머간사람이수년동안에십여명이나되다하며그병원안에서는금일까지정신병자(精神病者)만수용하얏섯다더라

秘密暴露 단춘환자에게서

별한과가튼대련자혜병원의악독한범죄사실이발각된단서는엽마권에밋친사람도아닌것을밋친사람이라하야그병원에감금하얏든가납파강(加納波江)이라는녀자가최근에그병원에서도망하야나왓는데그녀자가병원에서나오기얼마전에풍뎐용길(豐田勇吉)이란일본환자가독살을당하는사실을목격하얏다고발표한대로부터발각되게된것이라더라

退院할患者를毒殺하여 도혈하고사망 (대련뎐보)

대련자혜병원대범죄사실이세상에발표되기는상기한바와갓거니와독살을당한풍뎐용길은만주(滿洲)로건너와서여러가지사업에실패하고마침내실진(失神)이되야자혜병원에입원하야잇섯는바발광증이날마다심하야가다가점차회복되야필경퇴원하게되얏는데..."

멀금한사람을 患者라고監禁 재산을횡령하기위하야 의사와양자가공모하고

이번사실을폭로식힌가납파강(加納波江)에대한사실을듯건대그녀자는 소강자경찰서(小崗子警察署)에근무하는롱변호사(…)의 …양모인데 후등은양모의재산을 횡령하기위하야 의사와공모하고 멀금한사람을 밋친사람이라 하고 그병원의림모(林某)와공모한뒤에무리히파강을그병원에감금하고일변으로파강의실인(實印)을강탈하야재산횡령의계획을진행하든중파강은병원에갓치어무수한고생을겪그 아주쾌복되얏슴으로퇴원하고자 하얏스나 …

全身黑變 毒殺은無疑 증거가분명타

풍뎐의사인(死因)에대한문뎨의 초뎐은풍뎐의 …이에대하야 …

毒殺原因은 秘密을아는까닭 사건은즉시고소되엿다

그병원의사는각긔(脚氣)로죽엇다하며시톄는권부까마케되얏고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에는급성치보증(急性痴呆症)이라고하얏슴데다두어날뒤까지는아모이상이업섯슴니다그리고가장이상한것은우리집에는뎐화도잇는터인데죽을때에도통지가업섯슴니다』하더라 『지금생각하야도 끔즉합니다 풍뎐씨는 무슨약인지 바더서 한번들마시자그만자리에쓰러져 즉이지도못하고 나는여러가지로 간호를하다가 남아지약을 입에머금고 그만다는듯 할뿐만아니라 나도피까지 토하얏슴니다』

이상의여러가지사실을종합하간에서세서먹는등 도모지상상하지못할일이잇슴이 틀림업는바풍뎐은 … 독살은분명한사실인데물론도할수업는풍뎐도그병원안에서부인들을롱락하는광경을목격하고는 독살하는 사실의한몬를엿보앗다는 …

◇전선뎡구의패권을닷도는이뎐쟁◇

白熱의決勝戰

관중은뎡가전에이미만원 필승을다토는선수의분투

全朝鮮庭球大會第三日

뎨삼회전조선뎡구대회의뎨삼일은예상과가치대성황을이루엇다더욱히일긔까지온화하야아츰부터모혀드는관중은뎡각전에임의만원이되얏는데오전구시부터작일에계속하야청년단의뎨이회예선전을개시하야나숭실(崇實)과법전(法專)이대전하야법전이익인후다시추첨한결과뎨삼회예선은

成興—金剛 全徽文—法專

으로대전하게되야순차로작흥윤한결과금강과법전이익이엿슴으로청년단의우승긔쟁탈전은결국뎡구계의로련한선수가모힌금강단과신진으로유망한법전군사이에열기게되얏더라

第二回戰

靑年團第二回戰의咸興對徽文戰은十六日午前三時半부터始하야咸興에서優退組를내이고勝利하얏는데戰績은左와如하더라

○咸興||徽講×

○韓台桓三 孫殷範×
○曾東賢三 張淳楠×
×李澤龍一 一宋榮喆×
×金壽福一 一裵聖燮×
○崔錫一三 三申哲鈞○
○李東九三 二崔文基×○

元山靑年會對全徽文戰은元山軍이孤軍力戰하얏스나失策이만어드되어全徽에優退와不戰組를버이엇다

×元山||全徽○

×韓武錫一 三張承澤○
×林轄鈞一 三李顯九○○
×金良鳳二 三金元亮○
×崔德潤二 三李夏榮○
×金仁洙一 三金福應○
×崔光來一 三高錫喆○

金剛對順天戰은順天에서一點을先取하야遠征軍의氣勢를보이엿스나老練한金剛에게遂히敗戰하얏는대大將組後衛의沈着과前衛의快活한態度는滿場의拍手를밧엇다

○金剛||順天×

○具宗泰三 一任徹鎬×
○丁奎昶三 一孫中默×
○安鍾遠三 二鄭鍾皓×
○金源泰三 一河東淑×
黃明源 二金完根×
延鶴年 二金利基×

第三日

第二回戰 (續)

靑年團第二回戰의法專對崇實戰은十七日午前九時부터始하얏다崇實은遠來의孤軍으로善戰하얏스나失手가만어法專에優退를내이고敗戰하엿는데成績은如左하더라(審判은尹○炳金鍾旋兩氏)

×崇實||法專○

×金熙泰一 三李鍾喆○
×姜永與一 三張利裕○

第三回戰

第三回戰에入하야二勝者의抽籤을行한結果左와如히對戰하게되얏더라

一、成興—金剛
二、全徽—法專

成興體育對金剛團의第三回戰은十時부터始하얏다成興은實力이相當하야相李組는金剛의安金組를驟破하야氣勢를挽回하얏스나黃延組에게遂히敗하엿는데洗練된技術은觀衆의同情을사럿다(審判前上)

×成興||金剛○

×韓台桓 三具宗泰○
×曾東賢 三丁奎昶○○
×李澤龍 一安鍾遠×
×金壽福 一金源泰×
○崔錫一三 三黃明源○
×李東九一 三延鶴年○

全徽文對法專學專門戰은法專이처음부터歷迫을밧어危機에在하얏스나最後의李朴組가殊三組를驛破하고遂히勝利를得하야榮光의決勝戰에出戰하게되얏더라

全徽||法專

×李仁善一 三李鉉喆×
×金有聲一 三張祥裕×
○李潤榮三 一金英與×
○鄭東錫三 一柳定熙×
○梁承澤三 三李鍾喆○
○李顯九三 三朴斗昊○
×金元亮一 三金英與×
×高錫喆一 三柳定熙×
×李夏榮二 三李鍾喆○
×李顯九二 三朴斗昊○

決勝戰

小學團

小學團決勝의宣川公普對京城普成은午後一時부터始하야不同하야宣川에優退와不戰組를내이고慘敗하얏는데戰績은左와如하더라(主審尹昌炳副審李熙昌)

○宣川||普成×

○金顯國三 一李鉉福×
○文昌烈三 一宋英儀×
○李九成三 一申澤禎×
○崔道興三 一李敎斌×
鄭仁珍 金昌基×
鄭昌燦 曹德鎭×

中學團

中學團決勝戰의徽文對養正戰은午後二時二十分부터始하얏다養正의金沈組와徽文의張趙組는二十五分間이나相支하얏스나遂히三對二로惜敗하야優退와不戰組를내이고榮光의優勝은徽文에게歸하얏더라(主審李熙昌副審尹昌炳)

○徽文||養正×

○孫興九三 一金伯翼×
○南宮壎三 一金光沼×
○張元珍三 一劉泰永×
○趙徽元三 一李東根×
李弘正 二金潤植×
金安壽 二沈潤重×

賞品의寄贈

이번대회에 뜨다음과가튼 상품의기증이잇섯더라

角一 고무合資會社京城出張所
角一 印飮球十打
閔泳徽氏 銀腕時計六個

靑年團優勝은 금강군에게

청년단결승권은 오후에시반부터법권(法專)과금강(金剛)량군사이에개권되야 격렬한차전이잇슨후 오후네시반에 승리는금강군에게 도라갓더라

流言의目的은强盜掠奪

神人共怒할窮凶極惡

수범인산구정헌은복귀하수감중이다

일본관동디방의진재당시에조련조사중이던바풍설이나온곳은동량산구정헌(山口正憲)일파가 … 수감되엿다는데 산구정헌은진재당시에 황빈헌시가산구 …

群馬의虐殺犯 三十四名 을검거하엿다

일본군마현다야군(群馬縣多野郡)의자경단이백여명이지난구월오일에등강경찰서를습격하고보호중의남녀십칠명을학살하엿는데 …

埼玉縣熊谷서도 五十八名慘殺

그곳자경단이로동자를 일이발각되야범인수색

지난구월사일에기옥현옹곡뎡(埼玉縣熊谷町)에서그곳자경단이오십팔명의로동자를참살한일이발각되야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亡妻를戀慕하야 巡査의自殺 자긔가진렵총으로

수안경찰서(遂安警察署)순사횡촌이랑(橫村二郞)은지난십일오후칠시경에자긔엽총으로자살하엿는데그원인은지난봄에자긔사랑하는안해를일코사모하는마음이간절한결과이라더라(수안)

養正生의 投身自殺 친형의랭대를 분개한결과로

양정(養正)고등보통학교삼년생리긔춘(李基春)(二○)은지난십사일에한강텰교에서투신자살하엿는바그는양평군갈산면양근리(楊平郡葛山面楊根里)에사는리긔홍(李基弘)의셋재아우인바리긔홍은군내에서유수한재산가이며항상자긔아우의공부하라는것은냉대하야죽던지살던지나는몰은다고랭담한태도를가짐으로리긔춘은그를분개하야엇더친구의만류하는것도듯지아니하고필경만리가튼한강물에뛰어드는 …

연날니기도 一等은紅裙

십육일에경성권번공진회안의외에천수들이 교묘하야 …

醉漢의爭鬪로 길가에서일시소동

受賞者三千餘名

의포상수여식 十日 미빈관에서명 성대히거행된부업공진회

斯界의有志를網羅하야 博物學會를創立

각전문학교와중등학교의 교수교유가전부참가하여

元憲兵司令官 小泉少將 에서선다

標本展覽會 강연회와 청긔총회도잇서

新天地十月號發刊

崇義女校生盟休 학교승격과긔숙사규측개뎡 등조건을데출하고동맹휴학

妓生飛燕에게 女學生탈을씨여 돈을울그라다가발각

蹴球 한양구락부주최

運動界

◇휴지통

治積胸痛丸 年久積滯神藥 壽山藥房

手足업는人에게急告 義手足

朝鮮劇場

死의凋落 圓成社

金銀白金美術 昌信商會 京城南大門通

新琥珀 京城海市商會支店

泣血鳥 (읍혈조) 【130】

李熙昇作 盧壽鉉畵

그러면 엇더케하엿기에 십만원이란돈이 불과 삼사삭간에 업서지고 리셔방은 은행조합으로부터 거래뎡지의 처분을당하게되엿슬가

처음병호는 외국에 물품을주문하엿다고하고 리셔방에게현금륙만원을바다서 그륙만원은자긔가통창 횡령을하고는 다시이만원의 수형을발행하야 그것으로일본등디에서 약간의 물품을사오기로하엿다 실로 쉬운일이라고아니할수업섯다

그러나 일이란너무 급히하는데반드시 실패를이르키는 법이엿다 아니그보다도 륙만원이란돈이품속에 드러온병호는 넷날 친원이란돈이 생긴것을써에 룡자도이커버리고 인삼장사도 이커버린모양으로 지금에 선희를 이커버리라고 하엿다 륙만원의 현금을 횡령한그날밤 병호는친히와비밀히 맛나서 선희가엇더케하엿느냐고무를써에

『허 석골놈 속여먹기야 식은밥먹기지 ―』 자식 아조내말이라하면 무어이나다 신용하는걸 좌우간 오늘 외국에 물간을륙만원의치나 주문하엿네』

하고자긔는식굴놈이아닌지 또는 선희를 내려다보는모양으로 큰수나난듯이 말하엿다 선희는병호가자긔에게 거짓말을 하는줄은조곰도모르고 자긔네 계획이 잘되여가는줄만알고 깃버 함엔이엿다

그러나 병호가리셔방에게 사업확장으로 자금오만원을 더느리자는말이 잇슨후 사흘인가지나서의 일이다 리셔방은어듸서 술을먹고왓는지 잔뜩취하여 집에도라와선희를보자

『에이 ― 망할년 장사가다무에야……』

하고 그밧게무에라고한참 중얼거렷는데 이말을듯던선희는 가슴이 뜨금하지아늘수업섯다 그러고보니 병호가무슨 서투른일을하다가 발각이되엿나』하고생각하엿다

이날 리셔방은 엇던친구를맛나 이러한말을드럿다

『자네장사시작한지 불과서너달에벌서 은행과거래뎡지를 다당하고 ― 거 엇지된일이야』

『은행과거래뎡지를 당하다니 ― 그게무슨소리야』

『무슨소리긴 자네아직 그것도모르고단이나 장사는잘하겟네』

『모르고말고할께잇나 거래뎡지를당하엿다면 의레히 버가먼저알것인데……』

『허 자네신문도 못본것일세』

리셔방은 이말을듯고 잠간얼골이벌개지면서안키엇다 친구는 다시말을 니엇다

『그런데자네상뎜에 그청년자는본래 무엇하던사람인가 말을드르닛가 요맨칠동안 그자가화류계에서 돈을퍽쓰듯 한다는걸 …… 주의하게』

리셔방은 더참을수업는듯한 태도를잠간 보엿다 그러고벌덕이러서서는 친구에게 인사도하지안코 뛰여나왓다

리셔방은 지금에야 비로소병호가 의심스러운사람인것을 깨다랏다 비록감각성이 로둔하지만친구가 한번째여처주는 이말을드를때에 그는그동안 병호와 선희가엇전지 둘의 수상한행동을 나하나둘식 이르키가지고 그러코그러커야는것을 블룬하고 그자가나를속엿더라고 한것 이리고생각하야 분이 하늘을씨르게된것이다

『에익 이자식을 가서 죽여버려야지』

리셔방은 그길로 곳자긔의상뎜으로 뛰여왓다 그러고가々人문을드려살펴가지도 병호를맛나면 단번에산멱을쥐고 목을잘느리라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맘이 착하여그랫든가 또는역시어리석어그랫든가병호가무슨문서것츨것을 조사하다가 리셔방이 드러오는것을보고나면

『발금일본대판서 물건이왓서요』

하고 말한것은 리셔방에게언케주문한 무슨물건이 지금에왓는지 모를일이지마만 하여간하도 정직하고 아모흐리터분한 래도가업는 병호를볼째에 리셔방은 그만 성이 살허지고 여전한모양으로 가々人방을 한번주욱살펴볼것뿐이엿다

그러고 상뎜을나와서는 역시친구의말이 귀에 남어잇셧스나 가화나는김에술이나 한잔먹겟다하고 엇던술집으로드러가서 오래간만에 이러케술을 맘엇머고 집에 드라온것이다

副共審査概評(一)

第一科 棉

本科의出品은二百九十五點此人員二百七十三名으로其點數는棉花栽培者數에比하야多치못하나此를曩의大正四年施政五年紀念共進會當時에比하면斯業의進步發達함을知할지라只今左에槪評을揭하면

實棉 出品은九月中旬의摘採棉을主로한者로서陸地棉에在하야는最初期의것뿐임으로써一般으로充分치못하고纖維의長等에在하야不充分함을未免이나此에反하야在來棉은開綿期가早함으로모든點에서優良한것이不尠함을認할지라

近年에顯著히進步한것은出品物의選擇法으로써着色棉、異種의混淆가如함은殆히見치못하겟스나 그러나混淆에疑하는것은徒히一箱의棉重을大히함을競하는結果技巧를弄한것이多함이라

陸地棉은全羅南道務安、康津郡產은色澤이良好하나其他에可見할것이업고優秀棉花의產地로서有名한全羅南道靈巖、羅州郡產이稍不良함은頗히遺憾으로아는바이다纖維의長이一吋에達하는것이寥々한것은摘採棉의最初에在한產棉으로서는不得已한바이라繰綿步合은概히高하야最高三六%○로부터三二%五에及한者初期의產棉으로서는賞讚할만하며乾燥調製는모다良好하도다

在來棉 은充分히其特性을發揮하는者不尠하며더욱히京畿道產에優良을見할者가有하야在來棉의名產地인平安南道產을凌駕한는注目할만하며繰綿步合에在하야從來의記錄을破하는者平安南北道에各一點이잇서모다三七%를超함은可驚할事實이라纖維의長은概히一吋以下인둘은本年의天候로因함이다乾燥、調製共히佳良하도다

繰綿、打綿 繰綿은足踏繰綿機에依한者過半數를占하야手繰々綿器에依한것은少數이며點數의種子碎片의全然存在치아니함은可喜할事이라打綿은品質良好한것은가一도式打綿機를用한것은一點、日本式打綿機產에數點을認하얏도다(未完)

水產共進會開會에對하야

和田水產共進會長談

朝鮮의水產業은近年長足의發展을示하야年產額八千萬圓을算함에至하얏다然이나漁場의廣袤水產動植物의分布及斯業의經濟狀態에鑑하면아즉도開拓의餘地가綽々하야此에適應한施設經營의急을要함은多言을不俟할지라只今世界列强은何國을勿論하고戰後의創痍가未癒한此時에産業上으로나또는將來人口增加에伴하는食糧問題로나大히水產에依할者多하도다今秋에水產共進會를開催하야널니朝鮮各地의水產物及此에關한器具材料等을蒐集陳列하야其進步의程度와諸般施設狀況을展示하고各地에參考品을廣求하야一面으로生產業及水產事業의優劣得失을審查考覈하야當業者를鼓舞激勵케하고彼此比較對照에便케하야一般의自覺自發을喚起함은半島水產開發의一捷徑이라直接間接으로多大한效果를得할지니故로半島水產의中樞地인釜山에서朝鮮水產會及各道水產會聯合主催下에朝鮮水產共進會를開催하고上述한目的을達함과同時에半島水產業振興의一新氣運을促코저하는바이로다

前述한趣旨及目的으로써本春以來開設準備에努力하야各道로부터出品點數九千五百點을第一會場第一號館及第二號館과第二會場의階上階下에類別道別로陳列하고又日本各府縣及其他各地의參考品은關東地方災禍의影響을受하야當初豫定한點數보다는五百餘點을減少하얏스나山口縣下의出品을陳列하는下關特設館을除한外에尙且一千九百餘點의出品을得하야此를第三第四會場에區分陳列하고茲에開會의式을擧함에至하얏스니此專門의共進會는朝鮮에서此가卽嚆矢가되얏도다水產物은染織品과相異하야其大部分이食料品임으로頗히無味하나陸產과相對하야水產의範圍가如何히廣汎한것을可知할지며普通出品을十三類에分하야每類에道別陳列하고同一種類에對하야는彼此對照比較에便케하며其他水產製品의主要한產地產額及販路等의說明을附한外에水產物과陸產食糧品의營養價値의比較를示하야되도록一般觀覽人에게裨益이되도록함은本共進會의特色이오朝鮮產出品과日本產出品을比較하면朝鮮出品의加工程度가日本出品의加工程度에不及함을自覺할지라故로此點에在하야本共進會의開催는多大한效果를得할줄로信하노라

香椎協贊會長談

現下朝鮮產業은農業과水產業의二大產業이니卽水產業은三面緣圍九千餘里의海岸線을有하야魚介海藻의包藏이實로無盡藏의寶庫이라此富源의開發이得宜할진대正히世界的水產國이라하여도過言이아니로다人類는陸上動物이라往々히諸般產業政策이陸主海從의主義를取하야此無限한海底의寶庫를閑却하는弊가不無하나朝鮮의一例가그러하도다今後의朝鮮은水產事業의進步發達에最善의努力과相當의施設을講하야實로產業政策上最大急務이며食糧政策으로보드라도實로此가急務라하노라此에鑑하야商業會議所의決議로서所謂四大綱目을提出하고斷然蹶起하야爾來年々繼續的으로此를絶叫한바이니此四大綱目의一을水產業에置함은實로此上述의見地에不外하도다此際에當하야全朝鮮各道의共同主催下에朝鮮水產共進會의開催를計劃하게된것은吾人의가장歡迎하는바이며兼하야從來의因習인萬事中央集權의觀念을打破하고特히水產事業의中心이되고海產貿易上特殊의使命을有한釜山에其開催地를卜한것은此計劃의意義를特히明瞭히하고其性質의根本을發揚하는一大好擧라하노라그러나世人은往々히陳列會展覽會共進會等產業上計劃에對하야理解力이稀薄하야此를娛樂機關視하는弊도不無하니此는罪惡文化程度의幼稚에起因함이나特히當業者는此로써他山의石을作하야無限한實益을得할것을確信無疑하는바이로다

禁酒講演盛況

耶蘇敎宣敎師鮮特派員孫秩綏女史의禁酒講演會는去十月十一日下午七時부터當地英監理敎堂에開催되엿는데定刻前부터男女聽衆이滿場의盛況을呈하얏다는바金在燦氏의引導로讚頌과祈禱가有하고女學生의禁酒特唱이有한後에孫秩綏女史의禁酒運動과婦人의責任이란問題로酒와烟草와阿片의害毒을드러一時間餘의講演을繼續하야만흔聽衆에게感動을與하고同八時三十分頃에無事閉會하얏는데當日婦人만의禁酒會를組織하얏더라(寧邊)

大邱記者大會

大邱의特產品陳列大會를機한全朝鮮記者大會는預定과如히去十四日卽特陳大會開會當日에開催되얏다京城其他의記者三十三人在邱記者三十四人合六十七人의記者團은同日午前九時特陳大會開會式과同十一時午餐會에臨하얏다가午後一時南龍岡町大邱公會堂에서……

安法後援近況

京畿道安城邑內私立安法學校는當地天主敎堂附屬으로佛蘭西人孔安國氏가舊韓國隆熙三年에創設한以來十五年間許多한波瀾曲折을經하고僅々維持하든바今年에至하야는經費가益히困難하야不得已廢止할수밧게업는悲境에陷하얏슴으로去三月中에當地有志及同校學父兄諸氏가安法學校後援會를組織하고同校를當時旣往과如히維持하기로하얏다함은當時旣報와如하거니와其後同會에서는會長金聖熙兩氏外多數任員諸氏가極力周旋한結果各地有志諸氏와學父兄一同의熱誠한贊助를得하야會務가日益發展한다하며當地有志及學父兄諸氏로부터會費로承諾한金額이旣히千餘圓에達하얏다는데其芳名은左와如하더라

[illegible]

崇武團演藝會

二日間盛況

馬山崇武團에서는道場을建築코저當地有志諸氏의特別한援助의機會를得키로演藝會를開하기로하얏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去十二日은當地天主敎堂에서朝鮮日報及本報馬山支局後援下에開催하고……

特陳觀覽團體

大邱의特產品陳列大會의觀覽團體의去十三日부터十四日午後五時車外지入邱한團體는如左하더라

- 咸南北靑郡面職員三十五名
- 慶南南海郡四十一名
- 全南麗水郡婦人團三十二名
- 慶南宜寧郡十八名
- 同 山淸郡十四名
- 慶北慶州郡十四名
- 平壤高普生徒七十九名
- 京城中央高普生徒三十五名
- 平北昌城郡三十三名
- 金泉公普生徒五十名
- 慶南咸安郡十六名
- 全南潭陽郡二十名
- 永川郡八十三名
- 後館十六名
- 日本佐賀縣商校生徒四十二名
- 全州農校生徒八名
- 漆谷郡三十五名
- 尙州郡八十三名
- 安州郡三十八名
- 醴泉郡二十一名
- 義城郡二十名(大邱)

仁川在庫穀物

十三日現在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當地六銀行穀物在庫本月十三日現在는如左한바前月보다一千一百二十四石四斗가減少되얏고其品別數量은如左하더라(十四以下略)(安城)

順天女子培濟會

歸還學生歡迎會

公淸兩軍庭球戰

反浦面畜產品評會

水原稻多品評會

宣川秋季種痘施行

開城人士水害救濟

馬山穀物商定期會

三港貿易狀況

順天地主會

安城堤防問題解決

商況

仁川日用物價

◇祝朝鮮水產共進會◇

朝鮮水產共進會協贊會

會長 香椎源太郎

朝鮮瓦斯電氣株式社

釜山府富平町三丁目

朝鮮水產共進會協贊會

顧問 迫間房太郎

釜山府草梁洞六○四 株式會社 慶南銀行 電話 長五一一 五六○番

釜山府本町 內外科小兒科 入院隨意 金成國醫院 電話九四五

釜山府草梁 慶南印刷株式會社 電話七二九番 振替京城三七六七

釜山府本町 寢具完備 觀光客 親切 嶺南旅館 電話一○六五番 主 張牙仁

釜山府佐川町一○ 京城旅館

釜山府新町三八 雲集旅館 主 金龍祚

釜山府榮町 大東旅館

釜山府本町 蓬萊旅館 主 鄭貞利

釜山府大倉町一○ 聖三旅館 主 朴斗弘

釜山府 南一旅館

釜山府 大正旅館 主 金主益

釜山府 唯一旅館 主 趙相和

釜山府 順興旅館 電話二七九番

釜山府大倉町一○ 統濟旅館

釜山府大倉町四 海東旅館

最新式의光線治療 白濟醫院 電話一六二七番